

두드림

Do Dream

청소년이 발견한 교하 이야기



GYOHA LIBRARY

교하도서관 디어·교하

- 03 포토 에세이 | 김진**
- 04 우리 학교 속 또다른 교실, 같은 아이들 그리고 그곳의 선생님**
황정연 선생님 인터뷰 | 채예린
- 10 “비투비 보려고 공부해요”**
자신의 꿈-자본에 열정적인 이현아 학생 인터뷰 | 김진
- 12 아이들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에 대해 쓰다**
덕후들의 대변인 차윤미 작가 인터뷰 | 김단아
- 18 “방탄소년단은 단점이 없어요”**
작가를 꿈꾸는 김단아 학생 인터뷰 | 정수안
- 20 포토 에세이 | 김단아, 최민**
- 22 “과학의 힘과 재미를 알려주는 사람이 과학 교사”**
과학교사 박은정 인터뷰 | 김진
- 24 “내가 그린 웹툰이 ‘네이버 도전 만화’에 올라갔어요!”**
최민 학생 인터뷰 | 김서운
- 28 “비결이요? 당연히 저희의 꿈과 희망이죠!”**
산내중 자유학년제 발표회 운영진들의 이야기 | 최민
- 32 눈 잃은 고양이여도 예뻐요 | 김민수**
- 34 잠시 책을 멀리했던 내게 가깝게 다가온 책**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오후도 서점 이야기』 | 권민석
- 35 내가 처음으로 산, 글만 있는 소설 책**
『마인 크래프트 : 좀비 섬의 비밀』 | 권민철
- 36 즐거운 보드게임, 멋진 청소년 봉사자**
교하도서관 청소년 봉사 동아리 ‘날아라 슈퍼보드’ | 김은비, 신혜진
- 39 청소년 잡지 출간 축하의 글 | 이인숙, 김지하, 서상일**



발행일 2019년 12월 27일
기자단 권민석, 권민철, 김단아, 김민수,
김서운, 김은비, 김진, 신혜진, 이현주,
정수안, 채예린, 최민

글 이کم이 서상일
사진 이کم이 김지하
편집 서상일
디자인 디자인 '남'
표지그림 박재준
협력 디어 교하
인쇄 한영문화사
파낸곳 교하도서관
주소 파주시 숲속노을로 256
연락처 031-940-5153



사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 그림자 세상.
그림자 세상에 사는 어미새는 먹이를 찾기 위해 날개를 펼쳤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
그림자 세상은 밤만 되면 아이들의 방에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다.

우리 학교 속 또다른 교실, 같은 아이들 그리고 그곳의 선생님

황정연 선생님 인터뷰

우리에게 '학교'란 곳은 익숙한 곳이지만, 우리 기억 속 익숙한 교실 말고 또다른 교실이 있다.

바로 특수학급 교실이다. 같은 학교 속, 이 교실에서 우리 또래의 친구들은 어떤 수업을 받고, 어떤 생활을 할까?

나는 우리의 기억 속 교실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아이들의 미소와 순수함은 다른 교실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이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현재 특수학급의 선생님이로 일하시면서

유튜브 '특별한 세상의 두들(DooDool)' 채널을 통해 특수교사의 일상과 특수학급의 하루를 공유하고 있는

황정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다. ▶ 기자 ● 황정연 선생님

엄마와의 봉사활동에서부터 시작된 꿈

▶ 선생님께서는 특수교사라는 꿈을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 저는 원래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몰랐어요. 우연히 얼마랑 봉사활동을 갔다가 재미를 느껴서 꾸준히 다녔어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그런 저에게 담임선생님께서 특수교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특수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지만 그때는 정보가 더 없었어요. 다행히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정보도 많이 얻고, 입시설명회가 있으면 특수교육과가 있는 학교는 다 참여해서 설명을 들곤 했어요. 그때 '아, 이 직업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과를 지원하고, 또 합격을 해서 다니게 되었어요.

▶ 선생님께서는 '특별한 세상의 두들(DooDool)'이란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 제가 호주에 잠깐 갔다 오면서 유튜브에 여행을 일기로 기록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특수교사의 일상도 기록해 보

고 싶었죠. 아까 특수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특수교사가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특수교사라는 직업에 관심도 갖게 될 것 같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수교사라는 직업의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게 되었어요.

▶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특수교사가 되려면 당연히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수교육과에서 교육 과정을 다 밟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일이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특수교사로 4년째 일하고 있는데도, 힘들 때가 정말 많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당연하고 학부모님들이나 담임선생님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런 소통하는 능력도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문지식도 필요하죠. 학생들이 다 장애유형이 다르고 학생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육도 해야 하고, 또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훈련도 있어요. 그런 걸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니까 '이런 학생에게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많은 경험도 있어야 해요.



▶ 특수교사가 해야 하는 일이 되게 많네요. 그럼 정확히 특수교사의 주업무가 무엇인가요?

●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커요. 저는 보통 4, 5교시 까지 수업을 하고, 이후에는 수업 준비를 해요. 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치료 지원이나 통학 지원 등 종류가 많은데 예를 들면 통학 지원은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예요. 이런 서비스를 학부모님께 안내하고 확인하고 모든 과정을 다 맡아서 처리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수업 말고 체험학습이나 미술활동 같은 여러 활동도 계획하는 등 특수교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 들어 보니, 특수교사가 하는 일이 정말 많네요.

● 네,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가 많아 '아, 특수교사가 이런 거였구나'를 그때서야 깨달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것

▶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 제가 처음에는 몸이 힘든 걸 되게 신경 썼어요. 그저 학생들이 장애가 심해서 힘들다, 학생들이 말썽을 피워서 힘들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이 통합학급... 통합학급은 각 학생들의 원 반이예요. 그 반에서 어우러지지 못하거나 따돌림을 받을 때,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

요.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지지해 줄 수는 있지만, 제가 모든 것을 함께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잘 어울리지 못할 때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 그러면 특수교사가 아닌 교사와 아이들은 특수학급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학교의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도 그냥 일반 생활을 하고 싶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친구들에게 대해주듯이 하면 돼요. 뭐 '특별하게 애는 장애인이니까, 내가 더 도와줘야 해' 또는 '내가 더 양보해야 돼' 이런 틀을 딱 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혹시나 특수학급의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만 도와주고, 평소 친구에게 하듯이 함께 지내는 것이 부모님들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그렇고 담임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 다른 친구들을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 특수학급 친구들에게 과도하게 도움을 주려는 것보다는 평소 친구를 대하듯이 함께 지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야 재는 우리가 챙겨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다른 친구를 대하듯이 "야 어디 가자." 이렇게 하면 돼요. 가끔 정말 어렵거나 친구들도 이해할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 담임선생님이나 특수교사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이름만이라도 기억해주는 게 저는 되게 행복해요”

▶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보람을 느낀 적도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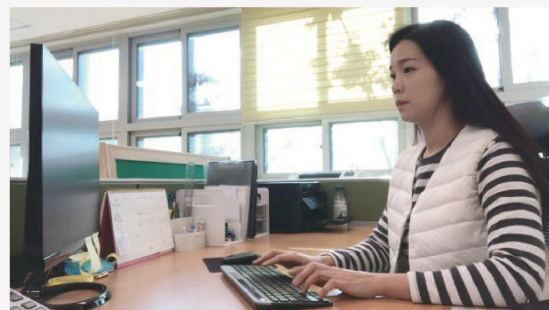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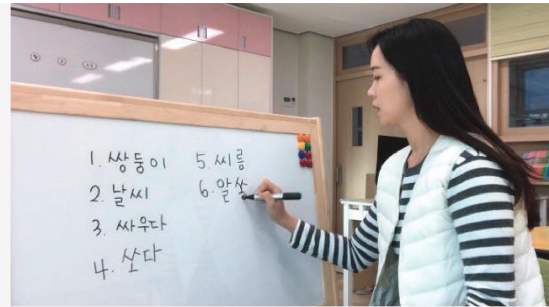
●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게, 스승의 날 카드를 받은 것이에요. 특수교사는 제자 없는 교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찾아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특수교사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1년 정도 함께했던 한 학생이 어느날 직접 카드를 만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이제 제 반이 아니라 다른 반이 되었는데도



요. 그래서 '아, 나한테도 제자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친구가 스스로 카드를 만들었다는 것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매년 집정리를 할 때마다 그 카드를 들고 다녀요. 카드를 볼 때마다 그 친구 생각이 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이름만이라도 기억해주는 게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이 친구는 제 이름도 기억하고 카드도 직접 만들어줘서 그게 정말 좋았어요.

▶ 처음에 특수학급을 맡았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점, 또는 새롭게 배우게 되신 점이 있나요?

● 처음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있었는데,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을 만날지도 모르고, 제가 스스로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두려움이 더 컸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업무도 알고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지도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두려움보다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는 설렘이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점점 경험을 쌓게 되면서 '아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되겠다, 이러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아마 처음보다는 수업하는 게 조금 더 발전되지 않았나



해요. (웃음)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아이들과 소통하는 선생님만의 특별한 수업 방법이 있으신가요?

● 전에는 '계획서에 맞춰서 해야 된다' 하는 식의 강박이 있었어요. 요즘은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급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과 의견을 얘기했을 때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학생들한테 일만큼 하고 싶은지 정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정말로 "오늘 이제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그걸 들어주죠. "선생님, 오늘은 이 블록을 이용해서 이걸 하고 싶어요" 하면 그거를 최대한 응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 전에는 ‘계획서에 맞춰서 해야 된다’ 하는 식의 강박이 있었어요. 요즘은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서 되도록 요구 사항에 맞게 수업을 하려고 해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니깐 학생들도 더 즐거워하고, 아이들의 참여도도 높아지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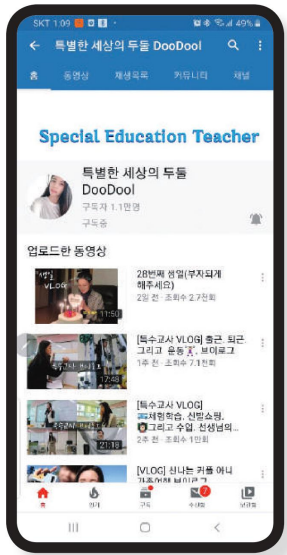
“학생 한 명 한 명 교육 계획을 작성해요.”

▶ 아까 진도를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친구들이 주로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 통합학급에서 같이 나가기 어려운 과목을 정해요. 담임선생님과 학부모님처럼 협의를 하고, 어떤 과목을 통합학급에서 배우고 어떤 과목을 특수학급에서 배울지를 정해요. 보통은 국어, 수학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국어나 수학 시간에는 학생들이 특수학급에 와서 그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아요. 예를 들어, 이 학생이 5학년이어도 국어 수준은 2학년이예요. 그러면 특수학급에 와서 2학년 수준의 국어 공부를 하죠. 만약에 이 학생이 장애 정도가 심해서 학습지도 이외에 생활지도가 필요하면 해당 시간이 아니어도 급식지도도 한다던가, 양치지도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장애 정도에 따라 과목이 다 다르고 하는데, 보통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라고 하면은 국어 수업을 제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체험학습을 가고 미술이나 요리활동이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거죠.

▶ 그러면 모든 학생들마다 진도도 다 다른가요?

● 예. 일반학급은 5학년이면, 모두 정해진 5학년 교육과정을 수업하잖아요. 그런데 특수학급에서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해야 해요.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하면 3주 정도 이 학생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해서 학생별로 교육 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장애인을 언제나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당연히 우리 사회에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획을 세우고 그 수준에 맞는 학습지나 교과서를 마련해요. 그런데 4~5명이 한 번에 수업을 할 때는 진도가 다 다르니 같이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상황에 맞게 시간표를 조율해서 학생에게 맞는 수준의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이번엔 처음 알게 되는 게 많네요.

● 네. 특수 교육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3학년이면 3학년 공부를 하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3학년이어도 한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5학년이어도 숫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당연히 우리 사회에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나요?

● 요즘은 장애인 이해 교육, 장애 인권 교육 같은 것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하는 편이에요. 연 2회 장애 인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지시가 내려와서 특수교사가 아닌 다른 일반학교 선생님들도 장애 인권 교육을 학생들한테 하고,

특수교사도 매 학기마다 장애 이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교생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요즘에는 장애 이해 신문을 만들어서 가정통신문으로 내보내거나 간단한 이벤트를 추가해서 학생들이 퀴즈를 풀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요. 어쨌든 이렇게 장애 이해 교육을 하면 확실히 안 했을 때보다 학생들의 인식이 조금 나아지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 가끔 길에서 장애인을 보면 약간 이상하고 조금 꺼려지는 사람으로 보잖아요. 학교에서도 특히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 따돌림이 더 심해져요. 저는 초등학교 때 장애인 이해 교육에 더욱 힘쓰면 이 친구들이 같이 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애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특수교사가 장애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특수교사들이 이런 교육을 맡아서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특수교육이 앞으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하면 좋을까요?

● 음. 앞으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자립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수교

육의 발전을 바라기보다는, 먼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장애인을 언제나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당연히 우리 사회에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들을 사회가 이상하게 보지 않으면 이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랑 좀 다르니까 이렇게 대해줘야 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장애인들을 대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의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생활의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장애인 채용과 관련된 법이 있기는 하지만,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또 아직은 장애인으로써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 모두가 소중해요. 그리고 동시에 미안해요.”

▶ 선생님께 특수학급의 친구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만약에 제가 기간제 교사가 아니어서 학교를 옮기지 않고 4년 동안 아이들을 본다면, 4년 뒤 학생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지 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매년 새롭게 만나는 특수학급 친구들이 1년 만에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다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 지도하기가 어려운 학생이 아니었으면, 예쁨을 받

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지도해요. 그리고 정을 많이 안 주려고 해요. 그런데 지내다 보면 아이들에게 정이 많이 가고 그래요. 해마다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새롭고요.

그냥 아이들 모두가 되게 소중해요. 그리고 동시에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하고 있지만 '내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데 이런 선생님을 만나서 미안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닌 4년 동안 함께 있어 줄 다른 선생님을 만난다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학부모님들께도 너무 짧은 시간동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미안한 거죠. 그래도 1년 동안이라도 소중한 추억 많이 쌓고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그럼 앞으로 선생님의 포부나 꿈은 무엇인가요?

● 특수교육과를 졸업하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갈 수 있고, 치료실에도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치료실의 인지치료가 되는 꿈도 꾸고 있어요. 이 학교 계약이 끝나면 내년에 인지치료사에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특수교육이 좋고, 지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서 오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만약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이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런 때는 정말 아쉽겠지만,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 주어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던 특수학급의 교실 속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때로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투정도 부리고, 직접 카드를 만들어 선생님께 잇을 수 없는 추억과 기쁨을 주기듯 하는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들이었다. 이들을 남들과 다르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건 이 교실의 바깥에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본 우리가 아니었을까?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당연하게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일상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인터뷰 _ 채예린 + 사진 _ 채예린, 황정현



“비투비 보려고 공부해요.”

자신의 꿈-자본에 열정적인
이현아 학생 인터뷰

BORN TO BEAT

기자 : 현아의 꿈-자본(하고 싶은 일, 가슴 셀레게 하는 일) 중 하나가 '비투비 (BTOB) 앨범 모으기'라고 해주었는데, 앨범을 모을 때 특히 가슴이 설레고 기쁠 때는 언제야?

현아 : 새로운 앨범을 사고 포장을 열고 나서 포토북을 볼 때 가슴이 두근대고 잔질잔질한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아.

기자 : 나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공감돼!

기자 : 스티디 플래너를 처음 쓰게 된 계기는 뭐야?

현아 :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공부하는 일상을 올리는 '공스타그램'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게 예뻐 보여서 하게 되었어. 또 나만의 플래너를 완성했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어. 지금은 30일까지 썼는데 매일매일 쓰려니 힘든 것 같아.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성장일 거라고 생각해.

“새로운 앨범을 열고
포토북을 볼 때
마음이 잔질잔질해”



기자 : 그럼 주로 어떤 계획을 써?

현아 : 내 숙제(영어, 수학)와 시간을 쓰고, 나에게 힘이 되는 글귀를 적어.

기자 : 그러면 좋은 점은 뭐야?

현아 :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

기자 : 하루하루 부담없이 쓸 수도 있는데 왜 100일을 정했어?

현아 : 플래너가 30일, 100일, 1년이 나눠져 있는데, 이미 30일은 지났고 1년은 아직 잘 몰라서... 100일에 도전해봤어.

기자 : 그럼 100일을 채우고 1년에도 도전해봐!

너무 하얀 그 벽에 뭔가 그리기 힘든가요.
틀릴까 무섭나요. 틀리면 어때요.
한 발 나서는 게, 그댄 잘하고 있어요.
— BTOB '그려본다'

기자 : 비투비 콘서트를 가기 위한 목적이나 이유로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

현아 : 고3이면 수능을 보고 한참 공부할 시기인데... 나는 '첫·중·막 콘'을 모두 가고 싶거든! 그래서 이 3일만큼은 내가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그전에 탄탄히 공부를 해서 스스로 보상해 주고 싶어. 물론 공부를 많이 안하는 시기라서 지금 가면 좋지만 비투비가 군대를 가서... 내가 고3 때 '완전체 콘서트'를 가고 싶어!

기자 : 그럼 전에 가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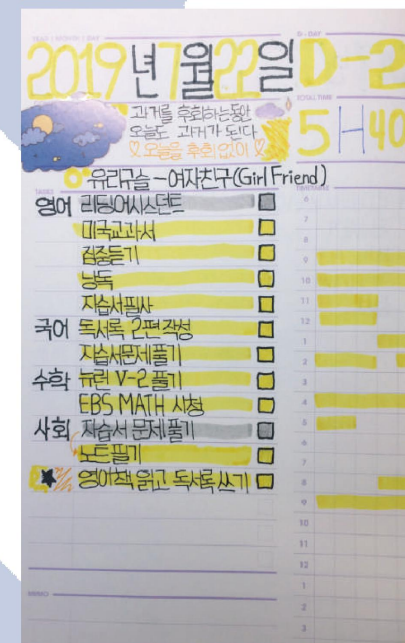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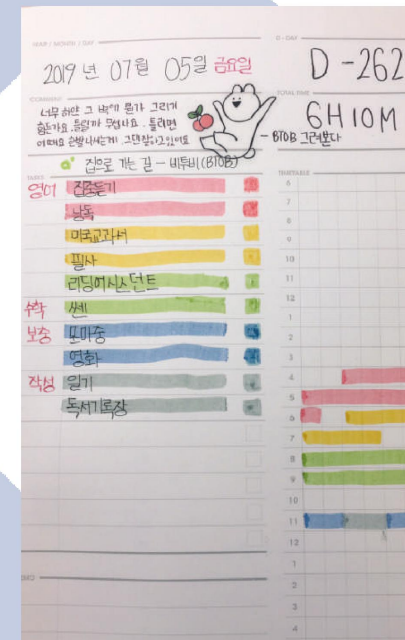
현아 : 티켓이 없어서 가보진 않았는데, 군악대 콘서트를 갈 예정이야.

기자 : 이 콘서트가 공부의 동기 부여가 되지?

현아 : 공부할 때 포스터를 붙이고 하면 더 잘 되는 것 같아.

기자 :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니 너의 꿈자본이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 부여가 되는 것 같아. 동시에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 지금까지 네 질문에 답변해 주어서 고마워!

인터뷰 + 사진 : 이현아



아이돌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에 대해 쓰다

덕후들의 대변인 차윤미 작가 인터뷰



『반짝반짝』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십대인 주연, 지원, 미란의 아이돌 덕질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주연은 공부 문제로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지만, 게임을 꽤 하는 소녀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전교 1등을 다루는 모범생'이자 일코(일반인 코스프레) 중인 '선플라워 빠순이(극성 팬)'인 지원이 슬쩍 주연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선플라워 콘서트의 티켓팅에 성공하면, 용돈 걱정 없게 해줄게." 주연은 안 그래도 성적 때문에 용돈이 위협받고 있던 터라 꽤 솔깃합니다.

그런데 인기 최고 걸그룹 선플라워 콘서트에 인기 최고 보이그룹 어썸이 게스트로 등장한다니! 피켓팅(피를 튀기는 티켓팅) 확정입니다. 주연은 무척 긴장이 됐지만, 운 좋게 18번이라는 기적 같은 티켓을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도 어썸 팬이니?" 바로 같은 반의 유명한 '어썸 빠순이'인 미란입니다.

주연은 자꾸만 지원이와 미란이랑 엮이면서 덕질에 눈뜨게 됩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아이돌을 사랑하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짝반짝』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며 생기는 사랑에 대한 갈증을 섬세하게 풀어내고, 덕질하는 아이들이 왜 덕질을 하는지 깊이 있게 답해 줍니다.

"행복해?"

미란이는 잠시 고개를 가웃거렸지만 이내 또렷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어썸을 보러 오면 온몸의 세포가 막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야. 너무 너무 좋아.

행복하려고 나는 여기에 있는 거야."

미란이는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나는 잠시 울컥했다.

행복은 대체 뭘까. — 『반짝반짝』 123쪽

이들은 각자의 집을 내려놓고, 아이들이란 별을 쫓다가 스스로 별이 되고자 각자의 꿈을 향해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성덕'(성공한 덕후)이 되고자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 책을 쓴 차윤미 작가는 그런 덕질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을 텐데요. 차윤미 작가 역시 열렬한 '덕후'라고 합니다. 『반짝반짝』은 차윤미 작가의 생각뿐 아니라 경험도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윤미 작가는 대체 어떻게 덕질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됐으며, 어떤 생각으로 책을 썼는지 알아보고자 직접 차윤미 작가를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덕질에서 글쓰기까지 "저도 덕질 좀 했어요."

작가님은 아직도 덕질이 현재진행형이신가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뭔가 덕질할 게 없을까 찾고 있긴 해요.

작가님의 아이돌 덕질은 어떤 식이었나요?

혹시 '응답하라' 시리즈 봤어요? 맨 처음 나온 '응답하라

1997'이 딱 제 얘기예요. 제 세대. 지금의 덕질은 입덕 짤이나 입덕 영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던 덕질은 소속사에서 푼 사진과 음악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짤 몇 개였죠. 아직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냥 테이프 사고 (웃음) CD 사고 그런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콘서트는...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티켓팅이 아니라 은행에 가서 접수를 해야 했어요. (웃음)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옛날 영상 보면 은행 앞에 줄이 짝박 있었어요. 근데 10대 맨 부모님



“ 좋은 메시지나 훌륭한 교훈 그런 건 딱히 없어요. 굳이 메시지가 있다 하면, ‘다 똑같아’ 하는 거죠. ‘다 똑같이 외롭고, 사랑을 찾고 싶고, 덕질 대상을 찾아 해매는 건 다 똑같아. 그게 어른이 돼서도 별반 다르지는 않더라고.’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생각보다 안 풀렸어요. 안 풀린다는 의미가 뭐 나면, 인정을 못 받은 거죠. 학원 강사도 하다가, 과외도 하고, 예술고등학교의 방과후 선생으로 갔어요. 그게 벌써 9년 전인가 그래요. 그때 처음 만났던 고딩 애들과 굉장히 친했어요. 소설에 나오는 아이들 이름이나, 덕질 스타일 등 다 깨들한테 제가 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덕질 얘기를 너무 잘 아는 선생님이 나타나니까, 애들이랑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계심대들의 덕질이 생각보다 단순한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덕질 문화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논문도 썼어요.

그리고 같은 과 선배였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처음 청소년 문학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예전엔 청소년 소설이 별로 없었거든요. 남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심대들의 정서를 담은 소설을 쓰면 잘 쓸 거 같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신선했다고 느꼈죠. 또, 제가 아파서 한동안 집 밖으로 못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직도 팬픽 문화가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쓰면서 꽤 많이 읽혔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합쳐져 자연스럽게 이 책의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쓰셨죠?

이 소설은 거의 6~7년 구상하고 썼어요. 그 사이에 제 소설의 모델이었던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그랬죠. 지금도 개네들과 연락해요.

이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나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되게 있어 보일 거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덕질이 제가 제일 잘 알고, 많이 했고, 가식 없는 분야였어요. 어른이 돼서도 새로운 아이돌 나오는 걸 보면 ‘어, 팬잡은 거 같아’ 생각하며 입덕을 하고 자

연스럽게 덕질이 되더라고요.

좋은 메시지나 훌륭한 교훈 그런 건 딱히 없어요. 굳이 메시지가 있다 하면, ‘다 똑같아’ 하는 거죠. ‘다 똑같이 외롭고, 사랑을 찾고 싶고, 덕질 대상을 찾아 해매는 건 다 똑같아. 그게 어른이 돼서도 별반 다르지는 않더라고.’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흔히들 말하는 공감이라는 거겠죠.

치열한 티켓팅 전쟁과 덕후들 사이에서 쓰는 은어까지 상당히 현실적으로 묘사하셨는데요. 이는 실제 경험으로 얻은 것들이가요?

덕질 좀만 하면 다 나오는 당연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피켓팅’이나 ‘플미’(좌석을 정사가에 구매하여 비싼 가격에 파는 행위), 이런 말이 오가는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모여 꾸리는 공동체잖아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런 단어들을 접하게 되니까 가감없이 썼어요. 그런데 출판사 사장님은 그런 문화를 전혀 모르셔서, 이 말들이 진짜 쓰이나, 표현이 너무 썬 것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이걸 너무 당연히 쓰는 단어들이니까 저는 써야 된다고 했죠. 늘 쓰는 말들이라서 저는 너무 편하게 썼어요.

‘휘영’, ‘어썸’, ‘선플라워’, 책 속 아이들의 이름은 어디서 따오신 건가요?

내가 처음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매일매일 카톡하는 몇 명이 있어요. 지금도 덕질하는 세 명이 있고요. 애들한테 아이돌 이름을 못 짓겠다고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룹 이름 하나씩 만들라고 했어요. (웃음) 그 중 한 명이 자기가 보는 미드에 어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애가 “어썸 어때요?”라고 했어요. 제가 “걸그룹도 생각해 봐!” 그러니까, 또 정해줬어요. 책 속 남돌 휘영이라는 이름은 실제 아이돌 멤버 중에 있어서 바뀌어야 하나 참 고민했지만 그냥 했어요. 그 이름은 제가 과외할 때 가르친 남자애

이 굉장히 딱딱한 스타일이셔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제가 돈 벌면서부터였어요.

아이들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84년 생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모 대형 기획사에서 처음 아이돌 런칭을 했어요. 물론 전에도 아이돌은 있었는데 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아이들이 그때 시작했어요. 6학년 때인가?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던가 커뮤니티라던가 덕질할 정보를 찾아볼 만한 곳이 없었어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은 학교였거든요. 학교에서 그 모 아이돌을 처음 접했어요. 애들이 갖고 온 아이돌의 사진이 실려 있는 잡지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찍부터 진로를 그쪽으로 정하셨나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고등학교 때부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순수문학 외에는 폄하하는 분위기였거

든요. 그런데 판타지 같은 장르문학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제 중학교 때예요. 장르문학을 접하고 나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쓴 글을 본 친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재미가 들어서 글을 쓰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과를 정해야 했죠. 선생님이 문창과는 힘들니 국문과를 가지 그러냐고 했는데, 국문과는 이상하게 가기 싫었어요. 그렇다고 다른 과를 가기에는 딱히 공부할 건 아니고... 그냥, 제 글을 읽고 “네 글 재밌어” 했던 그 기억 때문에 문창과를 가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반짝반짝』의 비하인드 스토리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모델이 다 있어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원래 전공은 회계이거든요. 소설이 아니고. 그런데

이름이거든요.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들 다 제 주변 아이들에게요. 주변들도 다 실제 모델이 하나씩 있어요. 다 제가 전화해서 “네 이름을 좀 써야겠어.” 했죠. 한 애는 “그럼, 성을 바꾸시죠.” 그랬고, 어떤 애는 “제 이름을 조금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해서 그런 식으로 썼어요.

현실에서도 많은 주연이가 있는데, 특별히 ‘류주연’의 모델이 된 사람이 있다면?

관찰자? 그 아이는 저예요. 어린 시절의 제가 다 투영되어 있어요. ‘만약 내가, 어릴 때 내가 만났던 제자들을 봤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상상을 했어요. 원래는 1인칭 주인공으로 쓸까 했는데, ‘한 템포 걸러서’ 표현하게 되었죠. 덕질이 보편적이긴 한데, 아주 세게 하는 사람도 있고 미적지근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결한 번 걸러주는 캐릭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어린 시절이 나왔더라고요. 미화는 됐지만 저라고 보면 돼요.

『반짝반짝』은 크게 눈에 띄는 제목은 아니에요. 왜 이런 제목을 고집하신 건가요?

안 그래도 출판사 사장님이 제목을 바꾸자고 했어요. 사실, ‘반짝반짝’은 가제였어요. 이 제목이 좋다는 사람도 있었고, 임팩트가 없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덕질이 지인짜 평범한 소망을 갖고 하는 일종의 ‘사랑 찾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평범하게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책에 나오는 애들도 특별한 애들은 아니잖아요. 지인짜 일상적인 애들. 그런 애들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신선하거나 특별한 제목을 한다 한들, 이 소설이 갖고 있는 보통의 공감대를 표현할 수 있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반짝반짝’을 처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읽기 전에는 “왜?”라고 했다가, 읽고 나서는 “반짝반짝일 수밖에 없겠네”라고들 하더라고요. 평범하지만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했죠.

만약 부모님 또는 어른이 이 소설을 본다면 어떨까요?

많이 달라지죠. 많이. 일단, 이 시절을 지나는 20대는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자녀로 둔 어른들은 마음이 복잡하겠죠. 걱정하는 부모에게는 “자녀와 얘기를 해보시죠”라고 말을 할 것 같고, “우리 아이 모습이 있네요”라며 자녀의 모습을 찾으셨다면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할 것 같고, “아니,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아이와 얘기를 해보시죠”라고 할 것 같아요.

전에 강연을 간 적이 있는데, 십대만 온 게 아니라 부모님도 많이 왔거든요. 부모님들 얘기 중 하나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 말에 저는 큰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런 여지를 준 책이라면 어른들이 봤을 때도 자신 있다는 생각을 했죠.

캐릭터마다 다 모델이 있다니 질문하기 좀 애매하지만... 특별히 애정하는 『반짝반짝』의 캐릭터가 있다면?

저는 관찰자예요. 책 속의 세 주연 중 류주연의 덕질 방법이 관찰자에 가까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린 시절의 저이기 때문에.

차운미 작가의 글 쓰기 “지금 할 수 있는 경험을 다 해야 해요.”

작가님만의 글쓰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저는 등장인물을 빈틈없이 설정하는 편이에요. 그건 제가 극작을 전공해서 그래요. 희곡은 기본적으로 서술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대사로 모든 걸 끝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캐릭터 플레이가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소설을 쓸 때도 항상 캐릭터 먼저 정해놓고 시작했거든요. 스토리부터 생각하지 않고요. 인물에만 시간을 거의 다 쏟는 정도예요. 그리고 캐릭터에 어울리는 스토리를 입

혀요. 읽을 때도 캐릭터가 살아 있는 글을 좋아해요.

맞아요. 저도 작가님의 작품 속 캐릭터에서 길을 지나가다기도 만날 수 있을 거 같은 생생함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캐릭터가 반짝반짝 빛나는 ‘세 번째’ 작품, 계획 중이신가요?

지금 한창 준비 중이에요. 『반짝반짝』은 별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얘기라면, 별 얘기도 있지 않을까요. 별이 되고 싶은, 별이 되기 전 아이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을 ‘주고 싶어’가 아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죠. 옛날 제자들 중 실용음악과에 다녔던 애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음악 얘기를 나누며 구상하고 있어요. 초고가 2020년 봄 전에 나와서 출간하는 게 목표긴 해요. 죽어라 써야 해요. (웃음)

작가님은 문예창작과를 나오셨는데요. 작가의 길을 걷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나도 어렸을 때는 ‘작가 되고 싶은데, 왜 공부를 하라 하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글을 쓰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로 나중에 지쳐 죽을 때까지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꿈을 증명하기 위한 발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나는 왜 글을 쓰고 싶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글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싶다면지, 그냥 즐거워서 쓴다면지, 다 이유가 있겠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하고 책을 많이 봐야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경험을 다 해야 해요. 나중에 못 하니까. 왜냐면 지금 내 나이의 아이를 쓰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재산이 될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글 속에 심어서 지금의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차운미 작가의 모습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성공한 덕후. 이른바 ‘성덕’이 되어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있는 차운미 작가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값진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 _ 김단아 + 사진 _ 서상일



“방탄소년단은 단점이 없어요.”

작가를 꿈꾸는 김단아 학생 인터뷰

B T S

기자 :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아 : 질문이 어려운데. 음... 복합적으로 단점이 없어. 맨
버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뛰어나요.

기자 : 방탄소년단 콘서트 가본 적 있어요?

단아 : 없죠.

기자 : 그럼 이번 10월 26일 잠실체육관에서 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팅 하셨나요?

단아 : 엄마가 50등 안에 들면 사주겠다고 했는데, 안타깝게 들지 못해서 돈을 지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자 : 덕질과 글쓰기 외에 다른 취미가 있나요?

단아 : 요즘에는 덕질 글쓰기 밖에 안합니다.

기자 :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작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단아 : 늦잠을 잘 수 있고,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기자 : 그럼 평소에 늦잠을 많이 자는 편인가요?

단아 : 네.

기자 : 아까 새벽에 일어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뭐하고 싶어요?

단아 : 그냥 생활을 낮과 밤을 바꾸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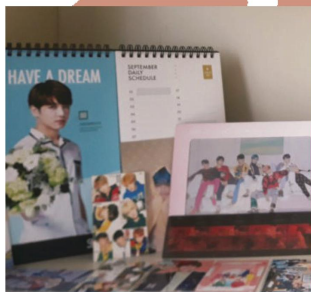
기자 : 굳이 그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단아 : 제가 햇살을 받으면 낮잠이 잘 오더라고요. 잠이 잘 와서 오히려 제가 낮에 잠이 많이 오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정신이 멀쩡한 편이어서. 부영이 같은...

기자 :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방송국 쪽에서 일하는 작가나 책을 쓰시는 작가 등 많은데 어느 쪽으로 일하고 싶으세요?

단아 : 어릴 때는 글을 쓰는 쪽이 더 좋았는데,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기자 : 무슨 드라마죠?



18

19



단아 : 멜론 차트 2위에 올라 있는 ‘멜로가 체질’ OST가 있는데요. 거기에 여주인공이 드라마 작가로 나오거든요. 그 모습에 반해서 요즘은 드라마 작가가 더 되고 싶습니다.

기자 : 그러면 드라마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뭐 스릴러나 로맨스, 액션 등등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혹시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무엇인가요?

단아 :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종류는 보통 ‘도깨비’나 ‘호텔 델루나’, ‘멜로가 체질’ 이런 쪽이기 때문에 판타지 로맨스 그런 느낌이지요.

기자 : 작가가 되고 싶어서 평소에 글을 많이 쓰시는 편이신가요?

단아 : 한 일주일일에 10장 정도씩 쓰고 있습니다.

기자 : 혼자서 시나리오 같은 걸 만드시는 건가요?

단아 : 네, 그런 편이지요.

기자 : 옛날에 쓴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단아 : 오글거리죠.

기자 : 닭발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닭발을 꼭 주말에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단아 : 음... 다음날에 숙이 쓰러서 학교에서 집중이 안돼요.

기자 : 닭발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잖아요. 그럼 혹시 이런 것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중에 좋아하는 게 있으신가요?

단아 : 네. 민트초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자 : 그러면 혹시 돼지 껌테기 좋아하세요?

단아 : 안 먹어 봤습니다. 좋아하는 가족이 없어가지고...

기자 : 조금 뜬금없지만, 치킨, 피자, 분식 중에 제일 먹고 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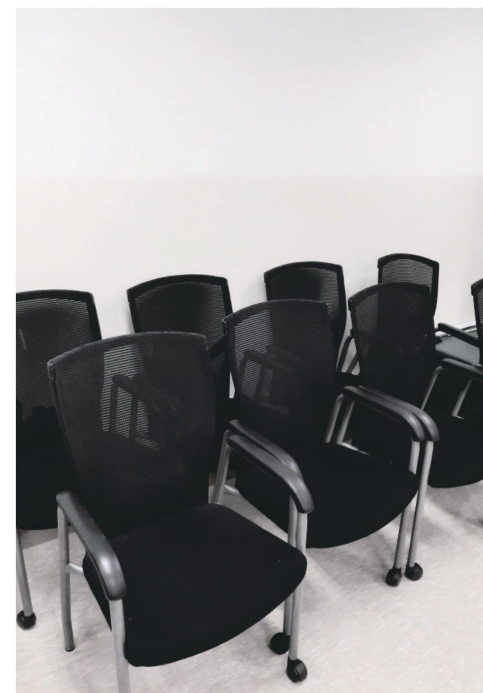
단아 : 떡볶이. 엽떡! 엽떡!

기자 : 기말고사 때 수학과 영어를 100점 맞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 수학과 영어만이에요?

단아 : 수학과 영어만 평점을 못 미쳐요. 다른 과목 다 평균보다 높는데...

인터뷰 _ 정수안 + 사진 _ 김단아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해요.
내 무릎에 앉아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커피도 마셔주세요. 불러주시면
네 바퀴로 달려갈게요. 여기로 와주시면 더 좋고요.



그 순간에는 왜 이것밖에 못 올라왔나 외롭게 자책했지만,
돌아보면 이만큼 열심히 올라왔는 걸요.

“과학의 힘과 재미를 알려주는 사람이 과학 교사”

과학교사 박은정 인터뷰

우리는 대부분 과학을 떠올리면 어렵고 지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과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과학과의 단단한 벽을 허물어주는 일산동중학교 박은정 과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과학 선생님이라는 꿈을 꾸게 된 시기는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 보람있는 일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번뜩 지나갔죠. 그래서 평소 내가 좋아하는 과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싶었어요.”

과학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학 선생님이 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전공을 한 후 사범대학교 혹은 일반대학교에 진학해 임용고시를 보거나, 교직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과학 전공 후 교직 이수를 하고서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 되었어요. 하지만, 과학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흥미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과학 선생님으로서 좋은 점이나 보람을 느낄 때가 있나요?

“먼저, 과학은 학습의 범위가 넓다는 것이 장점이예요. 실험과 탐구 뿐만 아니라 미술과 국어 등 여러 과목들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과학의 다양함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한 일이에요. 또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는 모습을 볼 때면 보람을 느껴요.”



미를 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학 교사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과학 교사로서, 그리고 박은정으로서 꿈이 어떤?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삶이 과학 교사로서의 꿈이에요. 하지만 나 박은정으로서의 꿈은 조금 달라요. 제 꿈은 창조인이예요. 저는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든 나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창조인이 되고 싶어요.”

과학 선생님으로서의 힘든 점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과학과의 벽을 허물어주는, 그러니까 과학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없애주는 것이 힘들어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과학을 멀리하는 학생들을 보면 아쉽죠. 사실 우리는 과학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이해시키는 것도 어려워요.”

자신이 생각하는 과학 교사란?

“음... 내가 생각하는 과학 교사, 과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과학 교사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과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런 과학의 힘과 재

인터뷰 + 사진_김진

“내가 그린 웹툰이 ‘네이버 도전 만화’에 올라갔어요!”

최민 학생 인터뷰

여러 미디어 상품이 인기를 끄는 요즘, 웹툰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웹툰을 그리는 웹툰 작가는 인기 직업 중 하나로 꼽힌다. 그람 줄 그린다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다수가 웹툰 작가를 선택한다. 그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이 교하도서관에서 있었다. 올해 5월 중반에 시작해 11월 초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웹툰 앤 굿즈’(꿈의 학교)다. 이를 소개하기 위해 ‘웹툰 앤 굿즈’의 참가자이자 졸업식 사회자로 활약한 최민 학생을 인터뷰했다.



꿈의 학교 '웹툰 앤 굿즈' 졸업식에서
최민 학생(맨 오른쪽)이 사회를 보는 모습.

‘웹툰 앤 굿즈’, 웹툰을 그리고 굿즈도 만들고

기자: ‘웹툰 앤 굿즈’를 짧게 소개해 주세요.

최민: 먼저 선생님들이 네 분(강현영, 나정인, 홍은지, 최수인) 계세요. 이 선생님들께 작품 세계관, 캐릭터 디자인, 시나리오, 콘티, 연출 같은 걸 배우고 자신만의 웹툰을 그림니다. 만들어진 웹툰은 ‘네이버 도전 만화’에다가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린 웹툰에 나오는 캐릭터들로 굿즈 도안도 만들고, 직접 받아갑니다. 관련해서 현재 웹툰 작가들의 강연도 몇 번 들었어요. 2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이 5월부터 11월까지 참여했습니다.

기자: 강연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강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내용이 무엇인가요?

최민: ‘마감을 지키자’는 거요. 강연해주신 박인근 작가 님이 다음 웹툰을 연재하셨던 분인데, 현재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마감이라는 게 단순히 보여도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고 해주셨거든요.

기자: ‘웹툰 앤 굿즈’에는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나요?

최민: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신청했어요. 원래 꿈이 웹툰 작가라서 다른 학년에 비해 비교적 시간이 많은 1학년 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기자: 웹툰을 제작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최민: 힘들었던 점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저는 다 좋았거든요. 사실 전부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만 뽑자면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웹툰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업도 재밌게 해주시고. 덕분에 마지막까지 훌륭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웹툰 앤 굿즈’에서 제작된 웹툰은 ‘네이버 도전 만화’에 올라갔죠?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최민: 대박. 매우 어메이징! 완전 엄청 좋습니다! 제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간 것 같아요.



“다시 하게 되면, 또 신청하고 싶어요.”

기자: ‘웹툰 앤 굿즈’에선 웹툰과 함께 굿즈도 제작했잖아요. 어떤 굿즈를 제작하셨나요?

최민: 저는 안경달이, 공책, 카드 지갑, 포스트잇 등등. 개인적으로 실용적인 걸 좋아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제작했어요. 디자인도 심플하니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그림으로요. 굿즈는 무엇보다 대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자: 만드신 굿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굿즈는 무엇이었나요?

최민: 제가 디자인했으니까 다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하나만 뽑으려면 클립버튼이요. 제일 일코(일반인 코스프레의 준말. 매니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숨기는 것)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가장 작고, 심플하니까요.

기자: 굿즈 도안을 완성했을 때, 그리고 제작된 굿즈를 받았을 때의 느낌이 알고 싶어요.

최민: 사실 도안을 그릴 때는 웹툰을 다 그렸다는 행복감에 뭘 더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굿즈를 직접 받았을 때야 너무 좋았죠. 뿌듯하고, 특히 안경달이가 예쁘더라고요.

기자: ‘웹툰 앤 굿즈’에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최민: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아쉬운 점이라고 해봤자, 학생 두 세 명이 선생님들을 고생시킨 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점수를 깎기는 싫네요. 너무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어요.

기자: 다른 분들께 ‘웹툰 앤 굿즈’를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최민: 네!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다면, 정말로 권해주고 싶어요. 만약 다시 하게 되면 저도 또 신청하고 싶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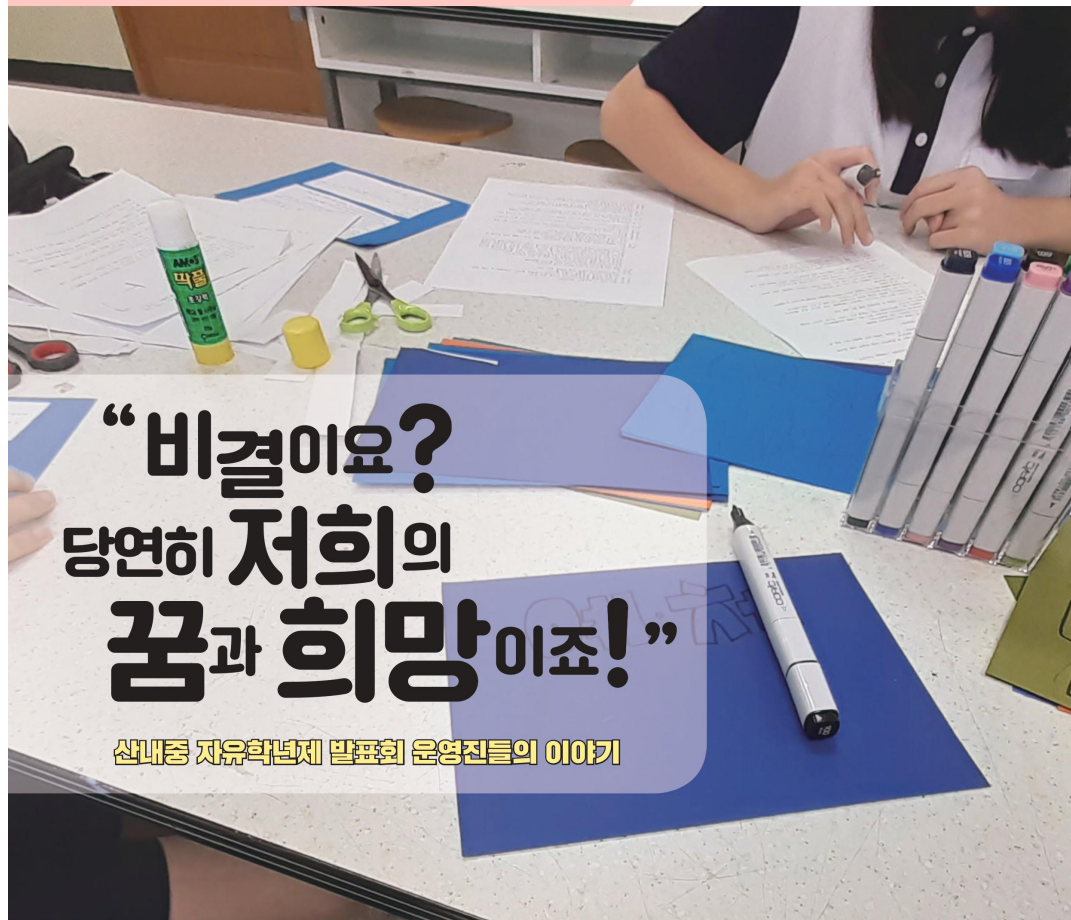
기자: 이유는?

최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다 좋아서요.

기자: 전국의 모든 웹툰 작가 지망생 분들이 이 인터뷰를 보면 좋겠네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_ 김서윤 + 사진 _ 최민, 행복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단





“비결이요? 당연히 저희의 꿈과 희망이죠!”

산내중 자유학년제 발표회 운영진들의 이야기

개교한 지 올해로 4년 된 산내중학교의 1학년 학생들은 2, 3학년 선배들과는 달리 색다른 경험을 했다.

자유학년제 활동을 발표하는 '자유학년제 예체 발표회'에 참여해 무대에 선 것이다. 학기 초에 모든 1학년 학생들이 신청하고 수강한 예체 수업은 약 두 달 동안 이어졌고, 이번 발표회는 그렇게 이루어진 수업의 결과를 뽐내기 위한 자리였다. 발표회는 5월 2일, 7월 11일에 각각 1팀과 2팀으로 나뉘어 산내중 체육관(강당)에서 진행되었고, 5, 6교시 총 두 시간 동안 1학년 전체 학생들이 모여 이루어졌다. 각기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따라 연극, 악기 연주, 방송 댄스, 치어리딩 등 팀 단위로 차례에 맞춰 친구들 앞에 선보였다. 또 도자기 공예 등 미술 관련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미술실 옆 공간에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해 놓았다. 공연을 올리는 수업을 수강한 치어리딩, 방송 댄스, 연극, 악기 연주 팀은 무대에 올라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뽐내었다. 그리고 여기, 이 발표회의 운영진이 되어 발표 당일에 진행을 맡은 사회자, 진행 대본을 작성한 작가 학생들이 있다. 인터뷰어는 1팀 사회자와 2팀 작가를 맡은 이채미 학생, 1팀 작가와 2팀 사회자를 맡은 제소정 학생, 그리고 2팀 작가를 맡은 최지안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8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자 : 안녕하세요.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발표회 운영진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채미 : 네. 일단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회자와 작가라는 직업을 체험하고 싶기도 했어요.

지안 : 제가 1팀 때 정말 지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학기 초여서 애들이 너무 어수선했거든요. 원래 글 쓰는 일을 사랑해서 작가가 지원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2팀 때 바로 지원했죠.

기자 : 운영진 오디션은 어땠나요? 면접 후기를 들려주세요.

지안 : 일단 사회자는 뭘 하라고 할지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작가는 예상이 안 가서 대비를 못 했어요. 가보니까 대본을 풍성하게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막상 해보니 어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합격을 확신했어요. (웃음)

채미 : 전 처음에 대본을 보고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외워서 하는 거더라고요. 대본에 나와 있는 대사를 다 못 외워서 애드립으로 시간을 채웠어요. 근데... 합격했더라고요. (웃음)

소정 : 사회자 오디션 때는 대본을 하나 주고는 외우라고 했어요. 당황해서 외우다가 제 차례가 됐을 때 더듬고 오디션을 망쳤죠. (웃음) 작가 때는 그냥 원고를 쓰고 제출하면 돼서 비교적 쉬웠던 것 같아요.

기자 : 아, 채미랑 소정은 암기에 약하군요. (웃음) 그럼 운영진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나요?

채미 : 저는 발표회 당일이 기억에 남았어요. 1학년 학생들이 전부 모여 있어서 많이 떨렸지만 막상 하나씩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안 : 저도 발표회 당일이에요.

기자 : 음? 지안이는 작가였잖아요. 좀 의외인데?

지안 : 너무 충격을 먹어서요. 대본을 열심히 썼는데 애들

이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유머 포인트에서는 웃지도 않고 집중도 안 했어요. 공연도 제대로 안 보고. 아휴, 뿌듯함이 실망스러움으로 바뀌었달까... 기억에 남는다면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죠.

“사회자는 힘이 팔 맞아야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기자 : 많이 아쉬웠겠네요. 그럼 가장 좋았고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채미 : 저는 운영진 친구들이요. 예체 활동하면서 인연을 쌓았어요. 다 좋은 친구들이어서 지금도 많이 친해요. 선생님들도 잘 가르쳐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소정 : 사회자를 할 때 파트너가 저와 잘 맞았어요. 그 부분이 제일 좋았고요.

기자 :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은?

지안 : 대본 쓸 때 진짜 막막했어요. 논설문 같은 건 많이 써봤는데, 진행 대본은 경험이 없었거든요.

소정 : 아쉬운 점 말해도 되죠? 저는 발표 당일에 방송부의 조명 실수가 있었는데 아직도 너무 아쉬워요.

기자 : 아, 그랬죠. 방송부의 실수가 사회자인 소정한테



29



불이익을 줬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소절 : 2달이라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당일에 실수가 나와버리니까 솔직히 화나고 짜증났죠. 많이 답답했어요.

기자 : 그랬군요. 아무래도 합이 중요한 과정이었을 텐데, 관련해서 느낀 점이나 생각한 바가 있나요?

채미 : 사회자 할 때 제 파트너랑 합이 너무 안 맞아서 선생님들께 혼났던 거요. (웃음) 근데 손짓이나 눈짓을 정하고 나니까 잘 맞았어요. 결론은 둘이 합을 딱 맞추기 위해서는 눈치가 필요합니다! (웃음)

소절 : 사회자는 마음이 잘 맞아야 하는 직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파트너와도 그렇고, 공연 하는 사람들과도 그렇고.

지안 : 음, 평소에 교실에서 모둠 활동하는 건 한 사람당 1인분씩은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애들이 꼭 있잖아요. 근데 이젠 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니까 1인분씩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좋은 시너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배결이요? 당연히 저희의 꿈과 희망이죠!”

기자 : 운영진 경험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채미 : 네! 예체 발표회 때 작가를 하니까 다른 수행평가 때 시나리오를 쓰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리고 평소 목소리가 작은 편이었는데, 사회자를 하고 나니까 발음이나 발성 연습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소절 :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생겨서 좋았어요. 저는 국어 교사랑 아나운서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꿈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어요.

기자 : 꽤 긍정적인 답변이네요. 학생이다 보니 프로페셔널보다는 약간 엉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결과물은 예상보다 '고퀄리티'였어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안 : 제게 작가라는 역할이 잘 맞았어요. 전 평소에 소설을 쓰거든요. 지금도 2년째 안 끝낸 글이 있는데. 아무튼 평소에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읽으면 그냥 글이 쉽게 써지거든요. 기자님도 아실 거예요. 갑자기 반짝 하고 뭔가 떠오르는 순간 같은 거, 있잖아요.

채미 : 저는 파트너와의 합이요. 아무래도 사회자 둘이 짝짜꿍이 잘 맞으면 그만큼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예비 멘트를 준비해뒀서 시간이 남았을 때에 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런저런 준비를 열심히 한 게 제일 중요했죠.

기자 : 꿈과 희망 같은 거 아니죠?

소절 : 당연히 저희의 꿈과 희망이죠! (웃음) 농담이고요. 작가들이 멘트를 잘 써주고, 사회자는 그만큼 잘 살펴줘서 아니었을까요. 아마 학생들에게 호감으로



보였을 거예요.

기자 : 역시나. 그럼 자유학년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절 :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을 무대 위에서 뽐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안 : 전 좀 부정적이에요. 자유학년제를 있는 그대로 즐기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만족해요”

기자 : 그럼 자신이 했던 역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점수를 매겨본다면?



소절 : 90점이에요. 당일에는 몰랐는데, 친구들이 제 목소리가 작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부족했으니까 10점은 깎았어요. 그 이외에는 전부 만족!

지안 : 10점 만점에 7점이에요. 사회자는 조명을 받는 역할인 반면, 작가는 너무 잊혀지더라고요. 내가 쓴 대본인데 사회자 입담이 좋다고 하고, 제 역할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해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 이걸로 3점을 깎는 건 좀 심한 것 같네요. 9점으로 올리겠습니다. (웃음)

채미 : 사회자는 10점 만점에 8점이에요. 파트너한테 제 목소리가 묻혔거든요. 작가는... 10점 만점에 9점! 제가 쓴 대본을 사회자 친구들이 잘 소화해줘서 되게 좋았어요.

기자 : 응? 채미 학생, 작가 때는 되게 좋았는데 왜 1점을 깎았어요?

채미 : 그렇다고 완벽하진 않아서, 양심상. (웃음)

기자 : 재밌네요. 오늘 인터뷰 답변해주신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터뷰_ 최민 + 사진_ 산내중학교

눈 잃은 고양이여도 예뻐요

3월말, 친구가 전화로 학교 본관 옆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새끼 고양이 5마리가 태어났다고 전화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새끼 고양이를 찾아 보았다. 그런데 고양이 한 마리가 이미 죽어 있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이었다. 선배가 학교 화단에 고양이를 묻어 주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후 한 마리가 사라졌다. 얼마 뒤 사라졌던 고양이가 끔찍하게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 장면을 본 누나 형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충격을 받으셨다. 그 장면을 처음 목격한 나는 더욱 충격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서, 또 남은 3마리의 눈이 빨개졌다. 고양이 담당 선생님이 병원에 데려가 보니, 바이러스 때문에 눈이 실명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학교에서 열심히 돌봐 주었지만, 결국 고양이는 시력을 잃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실명이 된 것이었다.

나와 친구는 고양이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몽치', '레이', '설기'다. 몽치는 애기 때 집을 자주 기어 나가는 사고몽치여서 몽치라고 이름을 지었다. 레이는 털이 회색이어서 그레이에서 레이가 되었다. 설기는 백설기처럼 하얗서 설기로 지었다.

학교에서 고양이를 입양할 사람을 모집했다. 나도 입양을 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반대로 입양을 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고양이 한 마리가 또 세상을 떠났다. 설기가 주말에 선생님 집에서 지내다가 급성 장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여전히 입양자는 찾지 못했고, 결국 학교 선생님이 임시 보호자가 되셨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기르던 고양이와 몽치, 레이가 잘 지내지 못하고 싸움을 벌였다. 결국, 선생님이 힘드셔서 몽치와 레이는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다. 학교 교실에는 고양이를 위한 케이지를 만들었다.



졸업생 형이 캣타워를 만들어 줬다. 고양이집이 만들어지고서, 고양이 관리 선생님이 몽치와 레이의 관리자를 뽑았다. 관리자는 나와 내 친구다. 나는 비록 레이와 몽치를 입양하지는 못했지만, 고양이 관리자가 된 것이다. 처음에는 케이지에서 고양이들을 꺼내고 밥과 물을 주고 똥도 치우고 다시 안으로 들였다. 요즘에는 밥주고 물주고 똥치우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의 쉼터에서 지내게 한다. 이 시간에 고양이는 잠을 자거나 바닥도 긁는다.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주말에는 밥을 줄 수가 없어서 금요일에 많이 넣어준다. 그런데 꼭 두부모래(고양이 화장실에 까는 모래)를 먹어서 토한다. 11월 말에 레이가 두부모래를 많이 먹어서 토를 자주 하고 밥을 안 먹기도 했다. 다행히 지금은 잘 먹는다.

고양이는 눈이 예쁜 동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고양이도 있다. 레이와 몽치는 비록 눈을 잃었지만 그래도 예뻐다.

글 + 사진_김민수



고양이를 후원해 주실 분은 연락주세요.
mskim20061006@gmail.com
010-4722-1760

잠시 책을 멀리했던 내게 가깝게 다가온 책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책 『오후도 서점 이야기』

우연히 예쁜 일러스트와 깔끔한 글씨체가 눈길을 끌어 『오후도 서점 이야기』(무라야마 사키 지음) 책을 집어 들게 되었다. 책을 펼치니, 고양이와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라 나도 모르게 소설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한 고양이가 한때 도시로 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여행자를 맞이하던 '벚꽃 마을'(사쿠라노마치)에서 외롭게 숨어 지내고 있다. 이 고양이가 한 소녀를 만났다가 헤어지고, 누군가 우는 듯한 소리를 느끼며 프롤로그가 끝났다.

"아는 누군가가 지금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프롤로그의 이 마지막 문구가 매우 인상 깊게 다가왔다. 바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뒤 본격적으로 책을 읽었다.

이어 1장에서는 가자하야역 앞 백화점의 긴가도 서점에서 일하는 주인공 츠키하라 잇세이의 이야기가 느린 호흡으로 흘러갔다. 책이 두껍지는 않았으나 앞부분의 이야기는 읽는데 꽤 오래 걸렸다. 하지만 덕분에 한창한 서점의 분위기를 더 잘 느낄 수 있었다.

주인공 츠키하라 잇세이에게서는 어두운 면이 느껴졌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 가는 듯했다. 그런 잇세이의 그늘진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나 또한 아프게 느껴졌다. 그런데 책을 훑어려던 소년을 쫓다가, 그 소년에게 사고가 났다. 이 일로 서점에 비난이 쏟아졌다. 잇세이의 상처 입은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는 것이 마음에 아프게 다가왔다.

결국, 잇세이는 서점을 그만둔다. 이후 잇세이가 예전부터 친했던 노인인 꿈에서 만나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말을 듣는다. 꿈에서 깨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다가, 오후도 서점의 주인을 찾아간다. 잇세이가 집을 떠나며 자신의 애틋함에



게 "같이 떠날까. 어딘가 멀리. 누군가를 만나러. 보물을 찾으러."라고 말한다. 그 말이 잇세이가 활력을 찾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아 좋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긴가도를 영원히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려 안타깝기도 했다.

이 이야기에서는 주인공 잇세이만이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들도 인상적이었다. 덕망 높고 훌륭한 긴가도의 점장이지만, 아저씨 개그와 짓궂은 농담을 좋아하는 야나키타 점장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고, 책에서 귀여운 역할을 하는 그림을 잘 그리며 '사월의 물고기' 책의 pop을 담당한 우사미 소노에도 개성적인 캐릭터다. 그리고 소노에의 소꿉친구로 뭔가 무사 같은 분위기가 나는 나기사 등 서로 다른 인물의 개성이 살아 있다. 소설은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짧게 돌아가며 주인공 잇세이를 천천히 비춰준다.

등장인물 뿐만이 아니다. 잇세이가 발견한 '사월의 물고기'라는 작품 속 작품도 인물 사이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로 더 책 속의 세계로 빠져들게 해주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간만에 가슴 깊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은 잠시 책에 손을 떼었던 나를 다시 책에 다가가게 해주었다. 그리고 '사월의 물고기'라는 작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성공하는 장면에서 잇세이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서 크게 감동 받았다. 오랜만에 마음으로 책을 읽은 느낌이다.

마지막 에필로그는 다시 고양이의 시점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마무리도 좋았다. 간만에 책에 빠져 읽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권민철

소설이란 도무지 재미 없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내게 서점에서 눈에 들어온 책이 있다. 게임에 한껏 심취해 있던 나에게 '마인크래프트 스토리북'이라니! 흥미가 생겼다. 표지의 마인크래프트 일러스트는 예쁘고 인상적이었다.

이 책은 내가 처음으로 산 글만 있는 소설책이다. 사실, 재미난 그림들이 있는 책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글만 있는 책이라 처음엔 좀 별로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내용이 흥미로웠다. 소설은 "물에 빠졌다"로 시작한다. 시작부터 주인공은 날 황당하게 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다. 우리를 가르치려고 이 책을 남겼다나... 그러면서도 의문점이 들었다. 뭘로 나를 가르칠까, 하며 계속 읽어보았다.

주인공은 깨어나 보니 물 속에 빠져 있었다. 춤고 어두웠다. 생각보다 너무 어둡게 시작해서 잠깐 할 말을 잃었다.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을 물에 빠뜨려 죽기 직전까지 만들다니 말이다. 주인공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수면 위로 올라가기 위해 몸을 비틀고 팔을 휘저으며 올라갔다. 마침내 빛이 보였다. 빛을 내고 있는 건 '사각형'의 해였다. 주인공은 바다 한가운데서 희망을 잃어갔다.

해가 사각형이라는 마인크래프트의 설정이 황당하면서 재밌게 표현하여 이야기에 더욱 빠져 들어갔다.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고 헤엄쳐 결국 육지에 도착한다. 하지만 작은 섬일 뿐이었다. 초반에 워낙 극한 상황이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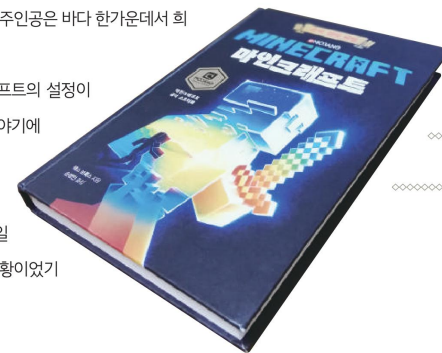
에 읽고 있던 나는 살아서 육지에 올라온 그에게 마음속으로 박수를 쳐 주었다.

게임의 설정 그대로 세상은 네모, 네 몸도 네모, 부수어도 그 모습 그대로 내 손에 들어오는 것까지 게임 안으로 들어간 듯한 생생한 느낌이 좋았다. 덕분에 상상하며 더욱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주인공은 몬스터인 좀비, 해골, 대왕거미 등을 무찌르고, 공격해 오는 크리퍼까지도 차례대로 물리쳐가며 모험을 펼친다.

책을 좋아하지 않던 나도 주인공과 함께 모험을 하듯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끝까지 재밌게 읽을 수 있었다. 주인공이 위험을 헤쳐 나갈 때 긴장감과 두려움, 살아 나왔을 때의 환호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느껴졌다. 덕분에 게임과는 또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한동안 이 책 덕분에 소설에 흥미가 커져 내 독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정말 신기할만큼 나에게 책을 읽고 상상하는 힘을 가져다 주었다. 나처럼 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분명히 나처럼 한 걸음 더 책에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민철



내가 처음으로 산, 글만 있는 소설 책

『마인크래프트 : 좀비 섬의 비밀』

즐거운 보드게임, 멋진 청소년 봉사자

교하도서관 청소년 봉사 동아리 '날아라 슈퍼보드'

매달 둘째·넷째주 토요일 오후 2~4시, 교하도서관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시끌벅적 즐거운 모습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보드게임, 여러 명의 참여자가 둘러앉아 일정한 규칙으로 진행하는 놀이다. 보드게임을 즐기는 이 시간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테이블 준비부터 게임 설명까지 활동을 주도한다.

우리는 많은 청소년 봉사자들 중 교하도서관에서 4년째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교하고등학교 1학년 박영준(아래 '학생1'), 봉사 2년이 된 두일중학교 3학년 조현비(아래 '학생2'), 교하에 거주하고 봉사 3년이 된 고양고등학교 1학년 이신유(아래 '학생3'), 이렇게 3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하였다.

이들 봉사자들은 상기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교하도서관에서 보드게임 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학생1 : 처음에는 그냥 봉사 시간이 필요하니까 왔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도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되었어요.

학생2 : 봉사 시간 점수를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 교하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시스템도 좋고, 아이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책 읽어주기를 하다가, 2학년 때는 보드게임을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되었어요.

학생3 : 저는 중1 때까지는 봉사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몇 시간이라도 채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친구가 여기를 알려 줘서 같이 하게 되었어요.

이 활동이 왜 재미있나요?

학생1 : 여러 가지 보드게임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귀엽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껴요. 아이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요.

학생2 : 저 같은 경우에는 봉사 신청하면서 만나는 동생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친구들도 만나면서 가르쳐 주는 것도 흥미가 있고, 그래서 재미있어요.

학생3 : 아이들을 좋아해서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만나는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렇게 아이들도 만



나서 좋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1 : 가끔씩 말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때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동아리장인



데요. 이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정도 힘들어요.

학생2 : 봉사 시간 점수는 이미 다 채웠지만, 계속 나오는 게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요. 주말에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도중에 나와야 하는 점이 힘든 것 같아요.

학생3 :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한쪽이 지고 한쪽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지면 울고 떼쓰고 할 때 난감해요.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학생1 : 한 학기 끝나고 선생님들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실 때 보람을 느껴요.

학생2 : 전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인터뷰 한 내용이 신문에 들어갔던 것이 가장 보람찼어요.

학생3 : 여기에서 봉사를 하면서 100시간을 넘게 채워서 상을 받은 것(2018년 파주시 자원봉사대회)이 가장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나 바람이 있나요?

학생1 : 함께 봉사하는 애들이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학생2 : 여기에서 봉사하는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도서관 예산이 된다면 새로운 보드게임으로도 활동해 보고 싶습니다.

학생3 :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려고요. 고3이 되어도 계속 하고 싶어요.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이 좋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아요.

봉사자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때로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그래서인지 인터뷰를 하면서 교하도서관 청소년 봉사자들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매번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멋있고, 봉사 시간을 100시간이나 채워서 상을 받은 것도 대단했다. 그리고 나 또한 이 활동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이들도 '날아라 슈퍼보드' 동아리를 찾아 보거나, 주말에 교하도서관에서 보드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기를.

인터뷰 _ 김은비, 신혜진 + 사진 _ 교하도서관, 서상일





놀라운 시민의 힘, 교하도서관이 함께합니다.



2017년 여름, 교하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전하는 <디어 교하> 잡지가 처음 나왔을 때 무척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2019년 겨울, 도서관에서 가장 만나기 어렵고 서비스하기 힘들다는 청소년들이 모여 이렇게 <두드림>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구나!' 하고 다시 놀라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마을 잡지가 나올 수 있던 것은 청소년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 교하도서관의 오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교하도서관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 '마을로 들어간 도서관'의 일환으로 청소년 마을 기자단을 꾸렸습니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했으며, 그 결과물인 인터뷰집이 읽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역과 청소년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드림>은 함께해 주신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기자 여러분들과 이들을 이끌어 주신 <디어 교하> 김지하, 서상일 선생님,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두드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잡지를 시작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문화가 계속 이어지길 희망하며, 나아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파주의 시민들이 주인공이 될 때까지 발간되는 잡지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두드림>을 만든 청소년 기자단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한 <디어 교하> 두 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 교하도서관장 이인숙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청소년을 이해하는 창이 되기를



<두드림>은 청소년들이 기자가 되어 만든 잡지입니다. 여기에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목소리, 그리고 청소년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하도서관(이인숙 관장)과 교하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마을 잡지인 <디어 교하>(김지하 대표, 서상일 편집장)는 '청소년 마을 기자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10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주에 걸쳐, 교하도서관 2층 문화강연실에서 인터뷰 워크숍과 사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미지를 글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좋은 사진에 대해 생각해 보며 자신의 생각을 담은 사진을 찍기도 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글로 정리해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터뷰 기사의 종류와 좋은 사진을 찍는 방법을 알려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가슴 설레는 일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기를 바랐습니다.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자기 또래를 인터뷰하거나 선생님과 작가 등을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멋진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건 청소년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교하도서관에 감사하며, 이 잡지가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기를, 어른들에게는 오늘날 청소년을 이해하는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교하의 마을 잡지 <디어 교하>의 김지하, 서상일

좋은 사

“ 너의 꿈-자존이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 부여가 되는 것 같아. 동시에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

“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경험을 다 해야 해요. 나중에 못 하니까.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재산이 될 거예요.”



GYOHA LIBRARY

교하도서관

주소 파주시 숲속노을로 256

전화 031-940-5153

홈페이지 <https://lib.paju.go.kr/ghlib>

페이스북 facebook.com/Gyohalibrary

디오나·교하

주소 파주시 꽃아마길35 1층

전화 031-942-3255



9 791196 864118

4 3 8 1 0

ISBN 979-11-968641-1-8 (비매품)